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3호 현대불교
2007년 8월 29일(음력 7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모두가 한마음의 불이다! 한마음의 광명이다!

▲사회자: 스님께서 2개월이 넘게 해외 포교를 위하여 북·남미를 두루 순회하시고 지난 29일 귀국하셨습니다. 피로와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았을 줄 알지만 저희들을 위하여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청하여 주십시오.

▲스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극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극하게 자기가 온 자리와 갈 자리, 또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이것을 아시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죽으면 무슨 천당에 가느냐 승천을 하느냐, 이런 따위의 이론이나 잡담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앉아 계십니다.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내주신 덕분에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심지어는 목욕하러 가서까지 설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습니다. 두 달째 목욕을 못 해서 목욕탕이 없다고 해서 갔는데,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법석을 마련해 가지고는 거기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에정을 잡았었습니다. 두 달에 끝마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죠. 11군데를 다니다 보니,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크니까요. 15시간 타는 데도 있고, 뭐 6시간 타는 데, 7시간 타는 데, 또 3시간도 타 때도 있고, 2시간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 몸을 지탱하면서 조금도 어떠한 내색이 없이 내내 그저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래 여기 오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원불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내 종교만 좋다고 야단들 하고 남의 종교는 깃발아서 문개 버리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하면 미신 소굴인 줄 알아요. 모두가 미신 소굴로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님네들까지 내쫓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 한마음으로 공부하듯이 '어느 종교든 한 뿌리 속에 있다' 라고 얘기했죠. 한 지구에 붙어사는 한 동물로서, 자기의 관념으로만 '내 종교가 좋다'고 졸렬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역설을 했더니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찬성을 해 줍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찬탄을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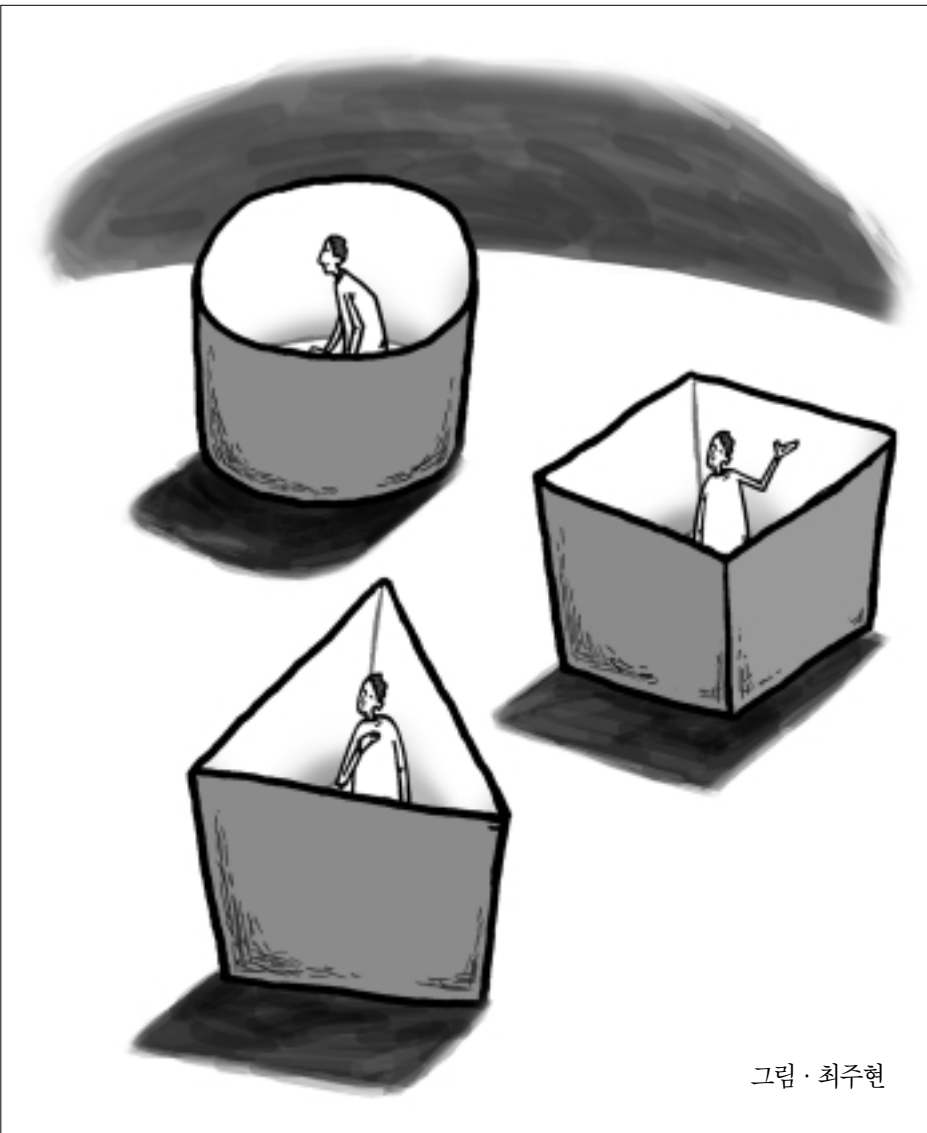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마음속에 감응이 되게 했고, 눈을 새삼스럽게 뜨게 했고, 귀를 새삼스럽게 열게 했다고 말입니다. 불교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은 정말 미처 몰랐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제자들은 '아이, 속 시원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수적으로 이것을 믿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만사가 돼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참나'인 자신의 뜻을 항상 중시하고, 항상 그 뿌리를 믿으십시오. 거기에는 거

름과 물을 쥐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와 잎새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서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그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따서 그런 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나무가 무성하질 않아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익지 못해서 그냥 말라 버리는 형상이니까 맛이 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공부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치도 에누리 없는 공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서 1년, 2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진 자동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렇게 바쁘게 휘둘러치고 그리니까 그 지원 자체 내에서도 정신이 없어 합니다.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뭐, 거기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없어 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저기서 설법을 하고서, 비행기를 급방 타고 와서 또 여기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저녁나절에는 피곤함이 좀 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려고 스님들하고 모두 산책을 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항상 알고 있고, 항상 하고 있고, 뜻으로도 항상 그렇건만 말입니다. 흑인이, 히히히... 새까만 흑인이 새까만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데 새까만 초콜릿을 손에 쥐여서 이렇게 물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아! 이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나!' 하하하... '이게 모두 철칙 같은 법이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구나! 흑인이 백인 낳는 거 봤?' 하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딴 사람이 모르거나 안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못해 보고 갑니다. 그렇게 에누리가 없건만, 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또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걸 새삼스럽게 본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혼자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히히히... 그리고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서서 오면서 애들처럼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우습다고 웃고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세상만사,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그렇게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멧들어서, 아주 유유히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 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 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다!' 하면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다가 그 영영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독사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저 팀,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몫이 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전부 헛간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요?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습니까. 지옥인데다가, 그것이 진화해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보라." 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 들어가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헤탈 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그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철 어떻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 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

22면으로 계속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심치료

동양 정신인 선과 서양 과학인 심리치료의 융합

심리치료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신성한 행위다.
현대생활은 그러한 신성함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은 그것을 향상시킨다.
선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며, 자아실현을 넘어서 있다. 매일매일의 선수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David Brazier 저 | 한이음과함원 김용환·박종래·한기연 공역 | 456면 | 17,000원

Z · E · N · T · H · E · R · A · P · Y

David Brazier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를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온 심리치료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 수행자다. 이미타(Trust) 트러스트(Amida Trust)라는 수행 단체(http://www.amidatrust.com)를 조직하여 불교 심리치료의 교육, 참여 불교 프로젝트의 추진, 현대적인 수행 공동체의 개발 등 불교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정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매튜 플릭스타인 저 | 고희일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전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밧친 저 | 장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1~9

박성희 저 | 각각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 마음과 상담 ● 불교와 상담 ● 선문학과 상담
- 논어와 상담 ● 퇴계유학의 상담 ● 도덕경과 상담
- 모리타 상담 ● 니하얀 상담 ● 동사상 상담

한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